

##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남규(한국비즈니스컨설팅 이사)\*

김명숙(마이비즈니스컨설팅 이사)\*\*

고종욱(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창업지원정책 변수로는 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의 세 변수를 검토하였으며, 창업가정신 변수로는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의 세 변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31명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종류의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은 창업가정신에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창업의지에 대해서는 창업가정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결과가 갖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지원정책, 창업가정신, 창업의지

### 1. 서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불리던 중국의 경제조차 심각한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고용불안의 증가와 실업률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3%대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5년 2월 현재 4.6%로 급증하였으며,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2015년 2월 현재 11.1%로써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청년실업문제는 다년간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활동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측면에서도 경제활동의 참여기회손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Yang, 2014)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청·정년실업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

며(Lee, 2013), 이에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창업관련 지원정책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으며, 이외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창업활성화대책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지원, 자금지원, 입지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청·장년층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자금지원, 세제상의 지원, 상담·용역 및 정보의 제공, 절차의 간소화 등이 있으며, 특히 이들에게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창업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등을 하고 있다.

창업은 일회적인 단발성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Lafontaine, & Show(2014)

\* 제1저자, 한국비즈니스컨설팅(주), motlab@naver.com

\*\* 공동저자, 마이비즈니스컨설팅 이사, jaram65@naver.com

\*\*\* 교신저자,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jwko@anyang.ac.kr

· 투고일: 2015-08-27 · 수정일: 2015-12-04 · 게재확정일: 2015-12-08

의 연속적 창업(Serial Entrepreneurship)이론에 의하면, 여러 번의 창업경험이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데 유용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높인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1차 창업성공률은 29%이며, 2차 창업성공률은 35%이며, 3차 창업성공률은 40%이며, 4차 창업성공률은 46%이며, 5차 창업성공률은 53%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창업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과정에서의 실패를 통한 값진 경험은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창업관련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창업정책 및 제도 관련연구(Johnson, 1990; Blanchflower, 2004; Lim, 2013), 창업 혹은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Gartner, 1985; Krueger et al. 2000; Yoon, 2004; Park, 2010), 창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Boys & Gumpert, 1983; Redding, 1993; Ha, 2012)의 세 범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창업지원정책 중에서 창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금지원이나 마케팅지원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Sandberg & Hoffer, 1987; Kim,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자금 및 마케팅 지원까지 포함하여 정부의 세 종류의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기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Jeon, 2011; Lim, 2013).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창업자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들도 포함하여 탐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함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창업지원정책

창업은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진다(No, et. al. 2003). 첫째, 기업창업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결국, 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업이 창출하는 부는 개인적으로 소중한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 매우 유용한 것이다. 둘째, 기업의 창업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용증대와 실업률감소에 기여한다. 셋째, 기업의 창업은 각종 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넷째, 현대사회에 있어서 하루의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시킨다. 다섯째, 기업의 창업은 많은 기술을 활용하게 되며, 또한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새로운 기술

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되고,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창업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창업지원정책으로서 1986년 창업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창업지원법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창업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하나의 생산경제단위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개시(Start-Up)함을 의미한다(Kim, 1991).

Johnson(1990)에 따르면, 창업지원정책을 창업자에게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훈련, 사후관리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는 창업자의 잠재적 능력과 특징의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특별한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준비공간 및 창업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Gartner & Vesper, 1994). 우리나라의 창업지원법이 지원하는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자금지원, 세제상의 지원, 상담·용역 및 정보의 제공, 절차의 간소화 등이 있으며, 특히 잠재창업자들에게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창업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창업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 세 프로그램이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들의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창업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가로서의 능력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의 산물이며, 따라서 창업교육은 높은 실패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실패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킴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인 창업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의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비즈니스쿨’,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아카데미’ 그리고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창업교육’ 등이 있다. 창업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경영, 마케팅 등 기존의 학문에 창업아이템의 발견,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작성, 인사관리, 재무관리, 기술개발관리, 마케팅계획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Nam, 2013). 정부는 창업과정을 창업준비단계, 창업실행단계 및 창업지속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준비단계에서는 창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실행단계에서는 예비창업자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그리고 창업지속단계에서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과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마케팅지원은 창업자가 생산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창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제품의 개발 방향에 대한 컨설팅 및 개발된 시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2014년에 정부는 창업실행단계에서 예비창업자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및 컨설팅에 약 1,300억 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 2.2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창업가정신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Kim, 2013),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에컨대, Shumpeter(1973)는 창업가정신을 환경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Timmons(1994)는 창업가정신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창업가정신 개념은 Maslow(1946)의 5단계 욕구이론(Needs Hierachy)이나 McClelland(1961)의 성취동기이론과 결부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5단계 욕구이론에 따르면, 욕구계층의 최고단계인 자아실현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개인의 존속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나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교가치의 단계를 넘어 스스로의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를 가리키며, 기업가정신이란 다른 아닌 자아실현욕구의 발현으로 본다. 한편,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창업가정신이 높은 사람은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며,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달성할 우수한 목표, 또는 보다 높은 목표를 정하기를 좋아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피드백을 즉시에 제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을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가의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고자 한다(An, 2012).

창업가정신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Miller(1983)는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Lumpkin & Dess(1996)는 자율성과 경쟁적 공격성을 들고 있다. 또한 Jung(2008)는 성취욕구, 내적통제, 자기효능감을, 그리고 Lee(2009)은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 업무의 열정, 위험감수성, 상황극복능력, 재무적 희생도, 신아이디어 적용을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조직차원에서 창업가정신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창업가정신 구성요소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3개 요소로 구성된다는 데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Barringer, 1995; Covin & Slevin, 1989; Le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서 이들 세 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혁신성은 경쟁적 우위를 얻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선호하고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하고, 위험감수성은 위험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성향을 가리키며, 진취성은 다른 경쟁조직에 앞서 행동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을 뜻한다.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의도적 태도를 말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Krueger & Carsrud, 1993). 창업의지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Yoon, 2004), 창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Fishbein & Ajzen, 1975).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Shapero(1982)의 창업이벤트모델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모델이 있다. Shapero의 창업이벤트모델은 창업을 독창력, 능력, 관리, 자율성, 위험간의 상호작용적인 사건으로 설명하면서,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정적 선택요인, 과도기적 공백 요인, 적극적 유인 요인의 세 가지 환경적 요인과 창업욕구에 대한 인식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 내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모델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명확한 계획과 의도적인 행동의 약속으로 계획된 행동의지를 가리키며, 이러한 행동의지는 행동실행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행동통제력’, 행동실행의 지각된 사회적 압력인 ‘주관적 규범’ 및 행동에 대한 ‘평가태도’의 세 요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고 본다.

## 2.3 창업지원정책, 창업가정신, 창업의지와 의 관계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창업 및 창업의지 관련이론들은 창업가정신을 창업의지 및 창업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행변수로 간주하고 있다(Gartner, 1985; Morris, 1998; Park, 2013; Lee & Jeon, 2014). 또한 관련 실증연구들도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컨대, 외국의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Gartner(1985)와 Morris(1998)는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Smith & Miner(1983)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통제위치가 창업의지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Sandberg & Hoffer(1987)의 연구는 창업자의 성취감, 위험감수에 대한 의지, 불확실성의 감수 등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실증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Park(2010)은 창업가특성인 위험감수성, 적극성과 비전 및 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Yoon(2011)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과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3)의 연구는 창업가특성인 성취성향, 진취성향,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 대

해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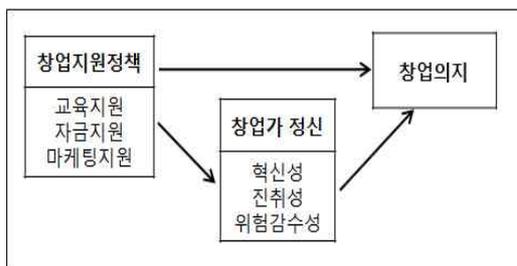
**가설1: 창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창업관련이론들은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고양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실증연구들도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Clark et al(1984)와 Lee & Lee(2015)는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창업가정신을 촉진시킨다는 발견을 바탕으로 창업자 기질은 타고난다기보다는 창업교육을 통해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Blanchflower(2004)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R&D자금지원이 창업가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Jeon(2011)은 정부의 벤처기업혁신지원제도가 창업가정신과 기술혁신성파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andberg & Hoffer(1987)는 창업 전 교육이 창업의지의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et. al.(2013)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니어창업역량프로그램에서 창업교육내용 및 환경이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Lim(2013)은 잠재적 창업자와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세지원 및 금융지원 제도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은 창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위의 가설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연구모형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III. 연구방법

#### 3.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정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가들이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 창업가 표본을 추출하였고, 이 중에서 본 연구에 협조의사를 표명한 3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온라인 웹기반 서베이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331명의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72.8%, 여자가 27.2%이며, 연령은 20대가 41.4%, 30대가 10.9%, 40대가 25.4%, 50대 이상이 22.4%의 비율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31.1%, 대졸이 37.8%, 대학원 이상이 31.1%이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52.9%, 미혼이 47.1%비율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하가 16.3%, 200~300만 원이 17.2%, 300~400만 원이 20.8%, 400~500만 원이 16.9%, 500만 원 이상이 28.7%이며, 직장경력 있는 경우가 61.9%, 없는 경우가 38.1%비율로 보였다. 창업경험 여부는 있는 경우가 31.1%, 없는 경우가 68.9%이며, 전공은 이공계가 48.6%, 인문사회/예체능계가 51.4%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특성

변수	범주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241	72.8
	여자	90	27.2
연령	20대	137	41.4
	30대	36	10.9
	40대	84	25.4
	50대 이상	74	22.4
학력	고졸이하	103	31.1
	대졸	125	37.8
	대학원이상	103	31.1
결혼여부	기혼	175	52.9
	미혼	156	47.1
월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54	16.3
	200-300만 원	57	17.2
	300-400만 원	69	20.8
	400-500만 원	56	16.9
	500만 원 이상	95	28.7
직장경력	있음	205	61.9
	없음	126	38.1
창업경험	있음	103	31.1
	없음	228	68.9
전공	이공계	161	48.6
	인문사회/예체능계	170	51.4

### 3.2 변수의 측정과 자료의 분석

3개의 창업지원정책 변수 중에서 교육지원 변수는 Clark et al.(1984)이 개발한 교육지원척도에서 3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은 Vaeley(1986)가 개발한 자금지원 척도 및 마케팅지원 척도에서 각각 3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3개의 창업가정신 변수 중에서 혁신성은 Miller(1983)가 개발한 혁신성 척도에서 3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의 두 변수는 Gartner(1985)가 개발한 진취성 척도 및 위험감수성 척도에서 각각 3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의지 변수는 Ajzen(1991, 2001)이 개발한 창업의지 척도에서 4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5점 스케일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과 AMOS 18.0의 두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를 계산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이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변수와 측정문항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모형을 구성한 후에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형적합도 지수가 .90 이상이거나 RMR이 .05 미만이면 모형적합도가 우수하며, 모형적합도 지수가 .80~.90 사이이거나 RMR이 .05~.08 사이의 값을 가지면 모형적합도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Kim, 2001; Bagozzi & Yi, 1988).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에 투입된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지수를 보면 IFI는 .926, TLI는 .908, CFI는 .925로서 모두 .90을 넘는 값을 보이고 있고 RMR은 .051로서 .05에 매우 근접한 값을 보이고 있어 모형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모두 최소한 .50 이상의 높은 값으로 해당요인에 적절하게 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50 이상이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70 이상이면 적절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지니며, 각각의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값보다 크면 적절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06). <표 2>를 보면 모든 AVE와 개념신뢰도값이 각각 모두 .50과 .70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3 >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각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은 적절한 집중 및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평가에는 Cronbach's  $\alpha$ 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0.60 이상이면 수용가능, 0.70 이상이면 만족, 0.80 이상이면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판단한다(Nunnally, 1978). 변수측정에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도 계수가 교육지원은 .801, 자금지원은 .790, 마케팅지원은 .776, 혁신성은 .747, 진취성은 .795, 위험감수성은 .748, 창업의지는 .913으로서 모두 최소한 .70을 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오차	AVE	개념 신뢰도	크론바흐의 알파
교육 지원	교육지원1	.695	.294	.673	.860	.801
	교육지원2	.812	.251			
	교육지원3	.767	.295			
자금 지원	자금지원1	.766	.267	.663	.854	.790
	자금지원2	.828	.178			
	자금지원3	.678	.434			
마케팅 지원	마케팅지원1	.579	.483	.633	.834	.776
	마케팅지원2	.851	.209			
	마케팅지원3	.813	.306			
혁신성	혁신성1	.754	.294	.574	.801	.747
	혁신성2	.760	.443			
	혁신성3	.624	.401			
진취성	진취성1	.735	.317	.676	.862	.795
	진취성2	.795	.247			
	진취성3	.731	.255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1	.656	.643	.561	.792	.748
	위험감수성2	.789	.223			
	위험감수성3	.712	.354			
창업의지	창업의지1	.816	.387	.704	.904	.913
	창업의지2	.910	.206			
	창업의지3	.896	.229			
	창업의지4	.783	.404			
$\chi^2=449.971$ , $df=188$ , $p=.000$ , $IFI=.926$ , $TLI=.908$ , $CFI=.925$ , $RMR=.051$						

### 4.2 상관관계 분석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창업지원정책의 세 변수인 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은 창업가정신 변수들인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보면, 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의 세 창업지원정책 변수 모두 창업의지와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의 세 창업가정신 변수들도 모두 창업의지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업의지
교육지원	(.820)						
자금지원	.482**	(.814)					
마케팅지원	.437**	.483**	(.796)				
혁신성	.300**	.280**	.296**	(.758)			
진취성	.235**	.244**	.261**	.452**	(.822)		
위험감수성	.285**	.270**	.385**	.551**	.445**	(.749)	
창업의지	.316**	.300**	.287**	.480**	.415**	.468**	(.839)

\* P < .05, \*\* P < .01; 괄호 안의 수치는 AVE의 제곱근 값임.

### 4.3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구성한 후에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들에 제시된 경로계수들은 모두 측정오차가 보정된 값들이다.

우선 창업지원정책 변수들이 창업가정신의 한 요소인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교육지원( $\beta=.171, p<.01$ ), 자금지원( $\beta=.119, p<.05$ ) 및 마케팅지원( $\beta=.164, p<.01$ )의 세 변수 모두 혁신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업지원정책 변수들이 창업가정신의 또 다른 요소인 진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혁신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지원( $\beta=.111, p<.05$ ), 자금지원( $\beta=.115, p<.05$ ), 마케팅지원( $\beta=.157, p<.01$ )의 세 변수 모두 진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창업지원정책과 위험감수성 간의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지원( $\beta=.122, p<.05$ )과 마케팅지원( $\beta=.299, p<.01$ )의 두 변수는 위험감수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자금지원( $\beta=.066, p>.05$ ) 변수는 위험감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영향을 보면, 예상과 달리, 교육지원( $\beta=.057, p>.05$ ), 자금지원( $\beta=.061, p>.05$ ) 및 마케팅

지원( $\beta=.058, p>.05$ )의 세 변수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혁신성( $\beta=.231, p<.01$ ), 진취성( $\beta=.171, p<.01$ ) 및 마케팅지원( $\beta=.210, p<.01$ )의 세 변수는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 분석 결과

경로	계수	S. E	CR	P	결과
교육지원 -> 혁신성	.171**	.064	2.803	.003	채택
자금지원 -> 혁신성	.119*	.066	1.897	.030	채택
마케팅지원-> 혁신성	.164**	.060	2.682	.004	채택
교육지원 -> 진취성	.111*	.060	1.789	.038	채택
자금지원 -> 진취성	.115*	.062	1.794	.037	채택
마케팅지원-> 진취성	.157**	.056	2.526	.006	채택
교육지원 -> 위험감수성	.122*	.063	2.047	.021	채택
자금지원 -> 위험감수성	.066	.066	1.080	.141	기각
마케팅지원-> 위험감수성	.299**	.059	5.010	.000	채택
교육지원 -> 창업의지	.057	.079	.988	.162	기각
자금지원 -> 창업의지	.061	.079	1.065	.144	기각
마케팅지원-> 창업의지	.058	.081	.963	.168	기각
혁신성 -> 창업의지	.231**	.075	4.043	.000	채택
진취성 -> 창업의지	.171**	.075	3.227	.001	채택
위험감수성-> 창업의지	.210**	.075	3.618	.000	채택

\* P < .05, \*\* P < .01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을 거쳐 창업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가 제시된 <표 5>를 보면, 위험감수성을 통한 자금지원의 창업의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제외하고, 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의 세 창업지원정책 변수가 창업가정신 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을 통해서 창업의지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통계량	P
교육지원 -> 혁신성 -> 창업의지	.040*	2.018	.022
자금지원 -> 혁신성 -> 창업의지	.044*	2.109	.017
마케팅지원-> 혁신성 -> 창업의지	.038*	2.044	.021
교육지원 -> 진취성 -> 창업의지	.019*	1.693	.045
자금지원 -> 진취성 -> 창업의지	.020*	1.699	.045
마케팅지원-> 진취성 -> 창업의지	.027*	1.991	.023
교육지원 -> 위험감수성 -> 창업의지	.026*	1.838	.037
자금지원 -> 위험감수성 -> 창업의지	.014	1.034	.150
마케팅지원-> 위험감수성 -> 창업의지	.063**	2.934	.002

\* P < .05, \*\* P < .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창업자 331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으며, 주요발견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관련이론 및 실증연구에 근거하여 창업가정신의 세 구성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이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결과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의 세 구성요소가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창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의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Gartner, 1985; Morris, 1998; Smith & Miner, 1983; Park, 2010; Yoon, 2011)의 결과를 경험적으로 재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정신의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이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들의 창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및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자금지원과 위험감수성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의 세 창업지원정책은 창업가정신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창업교육지원, 창업자금지원, 창업마케팅지원)은 창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는 본 연구결과에 의해 대체로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창업교육지원, 창업자금지원, 창업마케팅지원)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3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세 종류의 창업지원정책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창업가정신의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제고에 긍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들(Clark et al., 1984; Blanchflower, 2004; Sandberg & Hoffer, 1987; Kim, et. al., 2013; Lim, 2013)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의 영향은 창업가정신의 매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 간의 모호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정부의 창업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자금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제고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강화를 위해서 세 종류의 창업지원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수혜대상과 지원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지원정책이 단기성 혹은 일회성의 지원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Oh & Ha, 2013), 이를 개선하여 창업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의지의 제고와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지원정책을 통한 창업가정신의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지원정책으로 창업가정신을 충분히 고취 및 정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업종 및 창업단계에 따른 이론 및 실무교육, 예비창업자와의 일대일 코칭, 현장인턴십을 통한 산학연계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을 권장하는 문화적 풍토의 조성을 위해서 창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은 물론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가정신의 고취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창업지원정책프로그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개선하여 창업에 필요한 단계와 시간 및 비용을 줄이는 일괄처리제도 및 윈스톱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각종 규제에 의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은 물론 창업실패자들의 제도전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므로(Oh & Ha, 2013), 이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본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온라인 웹기반의 서베이 패널에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오프라인서베이 대상자들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한정해서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이외에 다양한 창업역량 관련 지표들을 사용하여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실제 창업건수 및 창업의 성공 건수도 함께 검토한다면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창업 경험 여부에 따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구분하여 변수들간의 인과적 영향 및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횡단적 연구에서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인

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과적 경로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들간의 인과적 영향을 탐구하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2), 179-211.
- Ajzen, I. & M. Fishbein.(2001).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n, T. O.(2012).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ng Entrepreneurs' Characteristic and Entrepreneurship up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Barringer, B. R.(1995). The Performance Implications of Achieving a Fit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Blanchflower, D. G.(2004). Self-Employment: More May not be Better (No. w1028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lark, B. W., Davis, H. & Harnish, V. C.(1984).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 26-31.
- Covin, J., Covin, G. T. & Slevin, D. P.(1989).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Fishbein, M. & Ajzen, L.(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Addison-Wesley.
- Lafontaine, F. & Show, S.(2014). *Serial Entrepreneurship: Learning by Doing?*, Etranet.isnie.org.
-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 Gartner, W. B. & Vesper, K. H.(1994),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3), 179-187.
- Ha, K. S.(2012).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rom Business Attitude and Fear on Business Failure, *Journal of Individual economy*, 19(5), 59-75.
- Jeon, D. Y.(2011). A Study of the Effect to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 System for Venture Business on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39-54.
- Jung, Y. W.(2008). *The Effects of the Teenag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preliminary founders and entrepreneurship knowledg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Jinju National University.
- Kim, G. S.(2001). *AMOS Structue equation model analysis*, Korea Infomation Industry.
- Kim, J. J.(1991). *SME Management*, Pakyoung Publishing Co.
- Kim, M. S., Lee, J. H. & Ko, J. W.(2013).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for Seniors and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3), 233-241.
- Kim, W. J.(2013).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Market Orientation and Goal Orientation on Firm Performance in Small-sized Business Firm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Krueger, N. F. &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3), 315-330.
- Lee, C. U.(1999). *A Study on the Rold of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B. G. & Jeon, I. H.(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Focusing on Potential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213-230.
- Lee, I. J.(2009). *A Study on the Impact of Business Start-Up Willingness by Educational Program for Retired Employee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W. J.(2013). The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Reasons Affecting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3), 113-124.
- Lim, K. S.(2013).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Government's Business Start-Up Supporting policies of small and medium size firm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slow, A. H.(1946).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July), 370-396.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estrand.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orris, M. H.(1998). *Entrepreneurial Intensity*, Westport, Conn: Quorum Books.
- Nam, J. I.(2013). *A Study on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for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Intention*,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No, J. G., Kim, I. G. & Song, B. S.(2003). *Start-Up Management*, Trade & Management Publishing Co.
- Oh, S. H. & Ha, K. S.(2013).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8), 143-157.
- Park, J. Y.(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the Effects of Mentoring*,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Park, W. C.(2010).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Jinju National University.
- Redding, S. G.(1993). *The Impact of Colonialism on the Formation of An Entrepreneurial, Society in Hong Kong*.
- Sandberg, W. R. & Hofer,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5-28.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humpeter, J. A.(1973).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Interests, and the Business Cycle*, New Brunswick: Transaction, 38-42.
- Smith, N. R. & Miner, J. B.(1983). Type of D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 325-488.
- Statistics Korea. *Employment Trend*, Retrieved Feb 1, 2015  
 f o r m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34591](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34591)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 Journal of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Innovation and Change.
- Vealey, R. S. (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 Yang, J. H.(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oon, B. J.(2011).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 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Academic and Industrial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17(2), 89-110.

##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Park, Nam-Gue\*  
Kim, Myung-Sook\*\*  
Ko, Jong-Woo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educational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marketing support)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examined educational support, fund support and marketing support as the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ty variables and innovativeness, progressiveness and risk-taking as entrepreneurship variables.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331 existing and potential entrepreneurs selected from the national panel of a online web survey research firm.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d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s. This study found that three entrepreneurship variables(innovativeness, progressiveness and risk-taking) had positive direct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at thre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variables (educational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marketing support) had positive direct effects on entrepreneurship, whereas these three variables had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

\* Director, Korea Biz Consulting, motlab@naver.com

\*\* Director, MyBizConsulting, jarakim65@naver.com

\*\*\*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Administration, Anyang University, jwko@anyang.ac.kr